#1. (컷신1)

아펜도스 마을은 평화로운 빛의 가호가 내려진 많은 마을 중 하나다. 알렌은 그런 마을의 평범한 가정에서 자란 사냥꾼이었다. 그러던 어느 날, 마을에 어두운 그림자가 내려앉게 된다.

#2. (컷신2)

알렌 “우리 마을이 왜 불타고 있는 거지?”

#3. (컷신3)

난장판이 된 집 앞에 도착한 알렌은 불길한 예감에 휩싸여 늘 가지고 다니던 석궁을 단단히 쥐고 주변을 살폈다. 불쌍한 알렌! 그는 이미 잔인한 운명으로 한 걸음 다가서고 있었다.

#4 (컷신4)

그가 마주한 광경은 참혹했다. 괴물들이 이곳저곳을 뒤지며 으르렁거렸고, 고깃덩이를 씹어 삼키느라 정신이 없었다. 분노에 찬 알렌은 석궁을 조준해 괴물들을 하나씩 죽여 나갔다. 마지막 괴물을 베어낸 후 그는 묵묵히 바깥을 향해 돌아섰다.

#5 (컷신5)

나약한 눈물은 흐르지 않았다. 오직 불타오르는 증오만이 그의 가슴에 자리 잡아 방아쇠를 당겼다. 그는 이를 악물고 어느새 주위를 둘러싼 괴물들의 목을 노려봤다. 그 길의 끝에, 무엇이 있을지 모르는 채로… 끔찍한 절망감에 사로잡혀서.

#6 (보스전)

알렌 “네놈 짓이군. 빌어먹을 것들을 버려둔 게.”

닥터 크로우 “공포를 찾는 방랑자가 또 겁 없이 기어들어 왔구나. 그래, 내가 친히 풀어준 죽음이 마음에 드는가?”

알렌 “왜 그런 짓을 한 거지?”

닥터 크로우 “재미! 그리고 사랑! 파괴가 내 친구이며 절망이 내 무대이기 때문에. 인간들의 달콤한 비명, 불안에 잠겨 떨리는 눈동자까지… 너무나 가련하고 아름답지 않은가! 나를 원망하라, 복수심에 찬 이방인이여! 차오른 네 절망과 고통은 지루함에 한숨짓던 나날들의 새로운 기쁨이 될지니.”

알렌 “지긋지긋한 놈! 매일 밤 널 마주한 지금, 이 순간을 상상하지 않은 적이 없었다. 감히 바라건대, 시위에 메긴 화살이 네 심장을 빗나가지 않기를!”

#7 (보스전 종료: 승리 시)

닥터 크로우 “하하… 통쾌한 복수로다! 네 화살이 나를 죽였다. 가소롭구나, 변두리의 영웅이여… 작은 승리에 취해 세상의 혼돈을 외면하겠나?”

알렌 “아무도 너를 기억하지 못할 것이고, 죽음조차 너의 파멸을 잊을 것이다. 나의 복수는 네 숨을 끊는 것이 전부가 아니야. 너의 끔찍한 죄악들도 함께 지옥으로 처박고 흔적을 모조리 불태울 테다!”

닥터 크로우 “네가 죽는 날까지 넌 오늘의 승리를 기억하겠지. 나는 죽어도 죽지 않는다! 너의 끔찍한 기억 속에서 영원히 불멸하리라! 아아, 난 참으로. 운이… 좋구나…”

#7-1 (보스전 종료: 패배 시) <이건 혹시 몰라 일단 넣어 놨어요

알렌 “여기서 쓰러지다니, 나의 분노가 부족했단 말인가…”

닥터 크로우 “증오는 낡아 허물어졌고, 화살은 살가죽 하나 뚫지 못할 정도로 무뎌졌구나. 어리석고 가엾은 자여! 네 덕에 나는 또 하염없이 기쁨을 기다려야 하나니…”